

## 총선 경쟁 벌써부터 뜨겁다

### 참여정부 장·차관 10여명 출사표 박지원 등 DJ측근 명예회복 벌러

17대 대선 참패로 위기에 빠진 참여정부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공천 혁명을 통한 풀파구를 모색하고 있는 등 광주·전남 정세가 총선체제로 급속 전환하면서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경쟁전이 예고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이를 반영하듯, 지역 정치권에서는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장·차관급 인사들의 총선 참여설이 광범위하게 거론되고 있으며, 전문성을 갖춘 정치 신인 및 전직 의원 등도 강력한 예비 후보 그룹을 형성하고 있다.

27일 광주·전남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탄생에

결정적 역할을 했던 호남 민심의 근저에는 범여권의 17대 대선 참패를 계기로 지역 정치권의 일대 재편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17대 국회에 진출한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이 새로운 정치적 비전과 리더십을 보여주기 보다는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으로 갈라 분열과 반목을 거듭하는데 열중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범여권 단일화 과정 등 대선 정국에서 광주·전남지역 현역의원들이 보여준 정치력은 낙제점에 가깝다는 평가마저 나오고 있다.

특히, 영남을 기반으로 한 한나라당이 집권하게 됨에 따라 내년 총선

에서는 호남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호남 정치의 미래를 끌어갈 수 있는 인물을 국회로 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물갈이' 여론이 고조되면서 벌써부터 광주·전남지역에서는 각 분야의 예비 후보 그룹이 속속 형성되고 있다.

우선 가장 눈길을 받고 있는 그룹은 정무적 능력이 검증된 전현직 장차관 그룹. 장병완 기획예산처장관과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 조영택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 임내현 전 광주고검장 등은 광주 출마가 확실시되고 있다.

여기에 전문직 감사원장, 임상규 농림부장관, 김승규 전 국정원장, 김종민 전 검찰총장, 홍영기 전 서울경철청장, 이승재 전 해양경찰청장 등은 본인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전남지역 출마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

전직 의원그룹도 과거 정치인이라는 눈총 속에 다크호스로 등장하고 있다. 우선 사면 여부에 따라 박지원, 한화갑, 이정일 전 의원 등이 내년 총선에 나설 것으로 점쳐지고 있으며 박상천, 박주선, 강은태, 정철기, 유인학, 국창근, 김경재 전 의원 등도 명예회복을 버리고 있다.

또한, 이형석 시민사회비서관 등 청와대 전현직 비서관 그룹과 심재민 전 광주시 행정부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장급 인사들의 총선 출마 행보도 줄을 잇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광주·전남 지역 18대 총선의 화두는 '물갈이'가 될 전망이다"이라며 "특히, 국민·참여정부를 거치면서 전현직 관료 등 정무적 능력 등이 검증된 인적 자원이 풍부하게 형성되면서 이번 총선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혼전이 펼쳐질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



### 저무는 정해년

저물어가는 정해년을 아쉬워하듯 태양이 바다를 구릿빛 낙조로 물들이고 있다. 하룻 동안 온누리에 고루 빛을 나눠 준 뒤 등대에게 밤 바다를 맡기려는 석양이 뜻내 서운하다. 만선의 꿈을 접고 차가운 겨울바다에서 총총히 귀선길을 재촉하는 어부의 노젓는 손길이 분주하기만 하다.

/전북 부안=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제43회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대회 접수중! http://marathon.kwangju.co.kr ☎ 062-2200-0541

## 새정부 밑그림 호남 빠지나

### 인수위 배제에 우려 목소리... "지역안배·인재풀 확대해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인선이 마무리된 가운데 호남 소외가 현실로 나타나면서 지역현안 사업이나 이명박 당선자의 대선공약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을지 우려하는 지역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6일까지 임명된 인수위원 및 당선자 비서실 소속 37명 중 광주·전남 출신이 단 1명에 그쳤기 때문이다.

광주·전남 지역민들은 인수위에서의 광주·전남 소외는 향후 5년 동안 청와대 인사 및 공직 인사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더욱이 이 같은 인사 소외가 광주·전남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지역현안 등 대형 프로젝트와 호남운하 등 이명박 당선자의 광주·전남 공약사업에까지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걱정마저 나오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호남 인사 소외가 계속될 경우 지난 12·19 대선에서 8~9%를 얻으며 광주·전남의 지역감정을 다소 누그러뜨리는 데 성공한 한나라당이 또다시 지역민으로부터 외면을 받는 신세로 전락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내의 물론 정치권에서도 '실용'과 '효용'을 강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사의 지역안배는 물론 호남지역현안 챙기기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는 주장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또 이 당선자의 인재풀을 호남으로 더욱 확대해서 과감한 호남 인사 대응으로, 호남 인사를 통한 호남 현안을 추스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관련 김영삼 정권과 김대중 정권에서 청와대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심재민 전 광주부시장은 27일 "과거에도 인수위에서 이렇게 한 지역이 철저하게 배제된 일은 없었다"며 "정권심장부에서 지역안배를 신경 쓰지 않으면 인사가 한 지역으로 쏠리게 마련이다"고 우려했다.

### 盧대통령-李당선자 오늘 국정현안 논의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28일 청와대에서 만찬을 겸한 회동을 갖고 정권인수 문제를 비롯한 국정 현안을 논의한다.

주호영 당선자 대변인은 27일 한나라당 여의도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노 대통령과 이명박 당선자는 내일 오후 6시30분 청와대에서 만찬 회동을 갖고 원활한 국정 인수인계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BBK특검법' 문제와 언급 가능성과 관련 그는, "내일 만찬에서 특검법 이야기가 있을 지 모르겠다"면서 "당선자로서 수용하겠다는 말을 했으니 하고 싶은 말은 있겠지만 실제 말을 할지는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28일 청와대에서 만찬을 겸한 회동을 갖고 정권인수 문제를 비롯한 국정 현안을 논의한다.

주호영 당선자 대변인은 27일 한나라당 여의도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노 대통령과 이명박 당선자는 내일 오후 6시30분 청와대에서 만찬 회동을 갖고 원활한 국정 인수인계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김영삼 정권과 김대중 정권에서 청와대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심재민 전 광주부시장은 27일 "과거에도 인수위에서 이렇게 한 지역이 철저하게 배제된 일은 없었다"며 "정권심장부에서 지역안배를 신경 쓰지 않으면 인사가 한 지역으로 쏠리게 마련이다"고 우려했다.

### "전남 수산물 안전 합니다"

총남 서해안 기름 유출사고로 수산물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전남지역 수산물의 경우 해상오염으로부터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여수해경에 따르면 최근 여수 백도 앞 해상에서 2천톤의 질산을 실은 화물선이 침몰, 질산 누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사고 해역의 산성도(pH)를 측정한 결과 pH 6-7로 나와 우려할 만한 질산 유출은 없다.

### 침몰 화물선 오염 없고 태안 기름오염과도 무관

또 27일 식품의약품에 따르면 최근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태안 등 총남 6개 오염지역과 전북 군산, 부안 등 인근지역을 포함한 총 10개 서해안에서 유통·판매되는 수산물과 횡집 수족관 용수의 원유 오염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 지역에서 유통·판매되는 수산물은 유출 사고 전에 생산됐거나 오염되지 않은 먼 바다 및 비오염지역에서 생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이 이들 어패류를 수거, 원유 오염지표성분인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 16종에 대한 이화학적 검사를 실시한 결과 수산물 92건 중 7건에서는 PAHs가 검출되지 않았으며 85건에서는 모두 외국 기준치보다 낮은 수준인 0.08-121.14ppb 농도로 검출됐다. /윤영기기자 penfoot@

유망학원 장학 67년 역사인 전통 남부대학교 http://www.nabuniv.ac.kr 전남과학대학 http://www.jstn.ac.kr

100년의 사랑 부채표 동화약품

“저도 가스활명수 좋은거 다 알아요!!”

쉽고 뉘든지 다 소화시키는거 아니잖아요. 속이 더부룩하고 답답하고... 저는 그럴 땐 가스활명수만 마셔요. 소화에 좋은 11가지 생약성분까지 있으니까~ 부채표 가스활명수 좋은거 저희도 다 알아요

11가지 생약성분 소화제- 부채표 가스활명수큐!

부채표가 없는 것은 활명수가 아닙니다!  
소화를 돕는 가스활명수의 11가지 생약성분 : 아산화, 고추틴크, 계피, 육두구, 현호색, 정향, 창출, 건강, L-Menthol, 진피, 후박

11가지 생약성분- 부채표 가스활명수큐